Dental Today
실시간 치과 전문지

식약처 감사패 받은 서울대치과병원

박원진 기자 | 승인 2017.11.13 16:40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지난 7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사례연구 워크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패를 수상했다.

워크숍은 전국 19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기 안정성정보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약처가 후원했다.

2010년 고려대구로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이 참여한 의료기기 부작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6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감시센터', 2012년 10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로 발전해 왔다.

2013년부터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연구회'를 시작했고, 현재 자발적 참여기관으로 서울대치과병원과 가천대길병원을 포함한 19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구축, 해당 지역 내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집·보고·분석해 환자안전과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종호 서울대치과병원 모니터링센터장(왼쪽 세번째) 등 수상자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7년 모니터링센터 활동 최우수 센터로 동국대일산병원이 식약처의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업비 지원 없이 자발적 참여기관으로 적극 참여한 서울대치과병원과 가천대길병원도 감사패를 받았다.

워크숍 첫 번째 파트는 순천향대부천병원 이유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환자 안전과 의료기기 안전관리(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희정 팀장) ▲의료기기 모니터링 프로세스 제고(인하대병원 의용공학 안영재 과장) ▲의료기기 UDI 활용 방안((주)사이넥스 김영 대표)의 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파트는 삼성서울병원 함태수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임상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연세대치과대학 권재성 교수) ▲필터 장착 의료기기의 적응증과 안전한 사용(벡톤디킨슨코리아 이권선 차장) ▲네블라이저 보완 사례(맥진메디칼 조학래 이사)가 발표됐다.

이종호 센터장은 "서울대치과병원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는 2017년 자발적 참여기관에서 2018년 정식 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 사업 신청을 할 예정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부작용 수집·보고·분석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박원진 기자 admin@dttoday.com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